

유리 로트만의 구조-기호학

— 예술의 복합 기호성과 문화의 복수 언어주의

김수환

소쉬르에 의해 '사회적 삶의 심장부 안에서 기호들의 삶을 연구하는 과학'의 가능성이 제시된 이래로, 기호학은 인류 문화사의 변천과 함께 나름의 진화를 겪어왔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언어 중심적 기호학' — 기호적 삶의 연구에 있어서 자연 언어가 기호학적 개념의 패러다임이 되어야 한다는 신념은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다. 문화의 다종적 '언어들'을 해독함에 있어서 언어학적 방법론을 적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 즉, 자연 언어 구조의 메타-언어적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은 다양하고 이질적인 기호 현상들을 하나의 '단일한 구조'로서 설명하려는 경향에 대한 거부감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나아가 그 뒤에 자리한 음험한 '형이상학적 욕망'에 대한 단죄로까지 이어진 바 있다.

그러나 후기 구조주의의 탈중심적 경향 혹은 데리다 언어 철학의 근본주의적 비판을 떠올리지 않더라도, 현대 기호학이 직면한 교착 상황은 어쩌면 가장 단순한 당면 인식, 즉 '현대 기호학의 발전과 변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절대적인 기호학적 도구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로부터 기인한다. 말하자면, 명백하게 비언어적인 기호 현상들의 존재와 현대 문화의 맥락 속에서 그것들이 지니게 된 '의미심장한' 중요성 앞에서,

우리는 여전히 언어적·비언어적 기호를 포괄하는 기호학적 보편소의 부재를 실감하고 있다.

인류 문화가 전혀 다른 방식으로 구축된 두 가지 기호 체계를 지니고 있다는 사실은 전혀 새로운 정보가 아니다. 글과 그림, 텍스트와 이미지, 언어적 표상과 회화적 표상, 분절적 기호와 비분절적 기호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대립항의 존재는 문화사의 시작과 함께 동반되어온 지속적인 현상이다. 동시에 다른 한편에서 우리는, 이들 대립항들 간의 경계를 허물어뜨리기 위한 지속적인 시도를 목도한다. 매체 순수주의의 반대편에는 경계선을 넘나드는 자유로운 교환과 융합을 향한 지향이 또한 존재한다.

글과 그림, 텍스트와 이미지 간의 이러한 '섞임'과 '짜임'이 문화의 어떤 영역보다도 예술 속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언어를 통해 '이야기'하는 시는 그림에도 끊임없이 무언가를 '보여주기' 위해 조형적 기호의 이미지를 닮으려 하며, 회화와 영화는 본질상 비언어적인 매체를 통해, 그림에도 무언가를 '전달'하기 위해, 계속해서 언어적 수단에 호소한다. 이러한 과정이 특정한 유파나 시대에 국한된 예술적 경향이 아니라 예술 그 자체의 본성과 관계되는 고유한 기호학적 현상이라 할 때, 이론적 차원에서 '예술 텍스트의 복합 기호성'에 관해 언급할 근거가 마련된다.

한편, '모든 예술은 복합 예술이다'라는 명제는 보다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한다. 예술이 문화를 구성하는 다양한 기호적 체계들 중의 하나이며, 궁극적으로 문화 체계의 구성소로 기능한다는 면에서 볼 때, 그것은 필연적으로 '문화 자체의 기호학적 특수성'에 대한 물음을 포함하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이질적인 기호 체계들의 공존과 상호 작용이 특정한 예술 이론의 하부가 아니라 그것을 포함한 광범위한 '문화 이론'의 중심부에 놓여야 함을 의미한다. 상층과 모순의 현상 자체가 문화적 차원에서 논의될 때, 기호학적 보편소를 향한 이론적 지향은 비로소 역사적·유형학적 전

망을 얻게 될 수 있을 것이다.

본 글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 설정 하에 유리 로트만의 구조-기호학 이론의 변화, 발전 과정을 추적해보고자 한다. '2차 모델링 체계'로서의 문학 텍스트에 대한 이론적 성찰로부터 문학 체계의 원칙적인 '복수 언어주의'에 이르는 약 20년 간에 걸친 로트만 기호학의 진화 과정은, 현대 기호학의 지난 궤적을 증거하고 있을 뿐 아니라 그것이 당면한 이론적 과제들에 적절한 시사를 던져줄 수 있다. 말하자면 이 글의 목적은, 한편으로 로트만 기호학의 기본 개념들과 그것들의 변모 과정을 살펴보면서, 동시에 이러한 과정 자체가 환기하는 기호학적 보편 문제들을 재검토하는 것에 있다.

1. 언어 예술(문학)

로트만 초기 기호학에서 문학을 포함한 예술 일반은 “2차적인 체계로서 자연 언어 상부에 구축된 언어,” 즉 ‘2차 모델링 체계’라는 개념으로 정의된다. 이러한 정의가 비언어적 예술을 포함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언어에 대해 2차적’이라는 말을 자연 언어를 질료로서 사용한다는 뜻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로트만에 따르면, 2차 모델링 체계로서의 예술은 질료의 기호적 성격과 관계없이 “언어의 타입을 따라 구축된다.” 말하자면 음악이나 회화가 자연 언어의 모든 측면을 재현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질료의 비언어적 성격이 그들 속에서 공통적인 ‘언어적 구조’를 추출해내는 것을 방해하지는 않는다. 이 같은 ‘언어 중심적 사고’는 이 용어를 예술 일반을 넘어서 신화·종교·제외와 같은 여타의 기호적 체계까지 확대 적용했을 때 더욱더 명백해진다: “인간의 의식이란 곧 언어적인 의식인바, 의식 위에 구축된 모든 종류의 모델들—예술을 포함하여—은 곧 2차 모델링 체계로 정의될 수 있다.”

자연 언어의 메타 언어적 가능성을 전제하는 이 같은 '구조주의적 확산'은 그러나 자연 언어 자체를 질료로 삼는 언어 예술, 즉 '문학'에 적용될 때 오히려 그 자명함을 의심받게 된다. 문학은 자신에게 고유한 '언어'를 획득하기 위해 스스로의 존재론적 조건인 '자연 언어'를 극복해야만 한다. 다시 말해, '2차 모델링 체계'로서의 문학은 "그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로 말하기" 위해서 질료로서의 자연 언어와는 일치하지 않는, 그 자신에게만 고유한 기호 체계와 그것들의 결합 규칙을 지녀야만 한다. 여기서 '2차적'이라는 수식은 이미 '연장'의 의미가 아닌, 명백한 '변별'의 기호로서 사용된다. '언어 중심주의'의 극복, 나아가 예술의 '복합 기호성'을 향한 로트만 기호학의 단초는 문학의 '자율성'의 문제가 그것이 지니는 '기호적 특수성'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이 지점에서 이미 발견된다.

로트만에 따르면, 언어 예술 텍스트의 고유성은 자연 언어에서 가정되는 일반적 전제들—기표, 기의 간의 '자의적 관계'와 상호 간의 명백한 구분 가능성—이 문학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본적인 사실에서 출발한다. 자연 언어의 기표/기의 대립쌍에 해당하는 표현/내용 층위는 문학 텍스트 속에서 명백하고 고정적인 구분 대신에 복잡하고 애매한 '상호 엮임'의 상태로 존재한다. 예를 들어 시 속에서, 일상 언어 차원에서라면 단지 통사론적 기호 요소에 불과한 많은 것들—음성·음소·형태소 등—은 어떤 질서화된 반복의 계열로 진입하면서 '의미화'될 수 있게 된다. 의미론/통사론 간의 대립의 소멸은 문학 작품 속의 '형식적 요소들을 의미문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전체적인 의미 용량을 현저하게 증가시킨다.

로트만의 이러한 입장은 한편으로 형식주의의 텍스트 개념을 계승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기법'과 '낯설게 하기'로 설명되는 형식주의 문학 이론에서 문학의 특수성은 '무엇'이 아니라 '어떻게'를 지향하는 것으로서 드러난다. '어떻게'에 대한 일방적 강조는 어쩔 수 없이 의미론의 후경화를 수반해야만 했으며 이러한 표현적 측면에 대한 기계론적 편향은 실제로 2기 형식주의에서 상당 부분 교정되기에 이른다.

로트만의 문학 이해는 형식주의의 텍스트 이해에서 표현 층위가 지나는 맹목적인 중요성을 합법칙적으로 설명해준다. 즉, 로트만이 보기에 형식주의가 보여준 ‘표현된 것’ —의도적으로 낯설고 어렵게 지각하도록 표현된 것—들에 대한 관심 자체는 적절하지만, 그것의 설명 방식은 잘못된 것이다. 예술 텍스트 속에서 표현된 것들은 ‘의미’로부터 정화된 것이 아니라 반대로 최대한도로 ‘의미’를 적재한 것이다. 표현 층위는 형식주의가 강조하듯이, 대상을 ‘낯설게 만들기’ 위해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여타의 방식으로로는 전달 불가능한 ‘복잡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된다. 말하자면, 문학 텍스트는 이러한 ‘복잡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 문학적 체계 내의 ‘모든 요소들’ —가장 미세한 형식적 요소까지도—을 사용하는 것이다. 한편, ‘형식적 요소의 의미론화’라는 그의 테제는 “문법적 형태들이 시 텍스트 속에서 지나는 독특한 예술적 의미”에 관한 야콥슨의 견해를 따르는 것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시에 국한된 현상이 아닌 언어 예술 텍스트 일반의 특성으로 확대시킨 것이다.

그러나 문제의 본질은 이러한 의미론적 풍부화를 가능케 하는 예술 텍스트의 기호적 특성에 있다. 로트만에 따르면, 문학 속에서 표현/내용 층위 간의 결합은 자연 언어의 기표/기의에서와 같은 ‘자의적(조건적)’ 성격이 아닌 ‘도상적(재현적)’ 성격을 지닌다. 앞서 지적한 표현/내용 간의 복잡한 뒤섞임 현상은 기호로서의 문학 텍스트가 지니는 ‘도상적 성격’에 기반한다. 예술 텍스트는 ‘모델화 체계’이다. 자연 언어 속에서 대상에 대한 기호의 관계가 역사적-관계적이라면 대상에 대한 모델의 관계는 ‘모델화 체계’ 자체의 ‘구조’로부터 결정된다. 즉, 기호로서의 예술 텍스트는 자신의 내용을 모델화하는 기호, 보다 일반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기표의 구조로서 기의를 재현’하는 독특한 형식의 기호가 된다. 이런 의미에서, 단지 하나의 기호 타입, 즉 도상적 기호만이 모델 개념에 대응될 수 있다.

언어 예술 텍스트가 자연 언어 기호라는 자신의 존재론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조형 예술에 특징적인 ‘도상적 원칙’에 따라 예술적 모델을 구성

한다는 이 같은 인식은, '2차 모델링 체계'라는 용어가 함의하는 중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무시되는, 또 다른 측면이다.

예를 들어, 금지를 의미하는 '사선'과 '말 그림'으로 이루어진 도로 표지판이 있다고 하자. 첫번째 기호는 도로 표지판 기호로서 명백한 조건적(관례적) 성격을 지니는 반면(사선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도로 표지판 언어에 대한 지식이 전제되어야 한다), 두번째 그림 기호는 대상과의 유사성을 통해 도상적 성격을 지닌다. 그러나 또 다른 경우, 즉 첫번째 조건적 기호(금지의 '사선')가 또 다른 조건적 기호인 '숫자'와 결합되었을 때, 두 기호 간의 조건성의 정도가 문제시된다. 두 기호 간의 조건성의 정도의 현저한 차이는 흥미로운 결과를 낳는데, 즉, 도로 표지판 기호의 명백한 조건성을 배경으로 하여, 숫자 기호가 '기능상' 앞선 예의 '말 그림'에 대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조건적 기호가 기능상 조형적(도상적) 기호에 대응되는 이러한 현상은 언어 예술 문학에 본질적인 국면을 이룬다. 로트만에 따르면, "기표와 기의의 자의적 결합에 기반하는 자연 언어 기호가 언어 예술 텍스트 속에서 '기능적으로' 재현적 기호와 등가화될 때, 이러한 자연 언어를 질료로 해서—전통적인 문학 이론에서 '이미지'에 해당할 만한—'2차적인 재현적 기호'가 생겨난다. 이러한 2차적 기호는 도상적 원칙에 따라 대상에 대한 직접적인 유사성을 매개하는 '도상적 기호'의 속성을 지닌다."

주목할 만한 사실은, 로트만이 언어 예술 텍스트에 나타나는 이러한 '도상적 성격'을 자동적인 현상이 아닌, 의식적이고 합법칙적인 기호학적 '지향성'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르면, "언어 예술은 언어적 기호로서의 단어가 지니는 근본적인 속성—표현/내용 층위 간의 조건성—을 '극복'하고 재현적 예술에서와 같이 '도상적 원칙'에 따라 언어적 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로부터 시작된다."

시, 그리고 나중에는 예술 산문에 이르기까지, 언어 예술이 조건적 기호의 질료들로부터 도상적 성격이 뚜렷하게 드러나는 언어 형상을 창조하고

자 애쓴다는 사실로부터, 재현적 예술 속에서 보여지는 반대의 과정은 자연스럽게 유추될 수 있다. 즉, 인간은 기호 자체의 성격상 '서술'의 수단으로 복무하도록 만들어지지 않은 그림을 가지고 줄곧 '이야기'를 시도한다. 서술을 향한 그래픽과 회화의 지향은, 가장 역설적이면서 동시에 영원히 작동하는 재현 예술의 경향들 가운데 하나이다. 이러한 재현 예술의 경향은 언어 예술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역설, 즉 질료의 본연적인 기호적 속성을 '극복'하려는 예술적 시도로부터 발생된다. 문학이 질료의 '조건성'을 도상적 추구를 통해 극복해야만 했다면, 영화와 회화는 자신의 본래적 '도상성'을 '조건화'해야만 한다. 영화·연극·회화와 같은 비언어적 예술 장르가 자신만의 고유한 '언어'를 획득하게 되는 과정은, 문학이 자연 언어와는 구분되는 자신만의 언어를 성취하기 위한 투쟁의 과정에 비해 결코 간단하지 않다.

2. 비언어적 예술

재현적 예술이 그 근원상 현실의 '재현,' 즉 '복제를 통한 중층화'와 관련된다는 점은 자명하다. 이런 의미에서 메아리로부터 각운이, 그림자로부터 그림이 생겨났다는 전설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예술의 본질에 관한 '거울'의 메타포 역시 마찬가지이다. 재현 예술은 그 자신의 본성상 언제나 '현실성의 환상,' 즉 묘사 대상과 묘사된 이미지 간의 '동일성'의 감각을 창조한다. 어떤 점에서 이러한 동일성의 환상은 신체의 일부분(가령, 머리카락)을 그것의 주체와 동일시하는 주술적·고대적 의식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그러나 종이 위에 묘사된 얼굴은 결코 실제의 얼굴처럼 쓰다듬어질 수 없다. 묘사된 대상은 그 대상과 연결되어 있던 모든 구체적·실제적 연결들(공간적·문맥적·실용적 등등)로부터 '절연'된다. 바로 이 같은 가장 기초적인 사실이 현실의 재현, 복제를 통한 그것의 중층

화라는 재현 예술의 본질을 이룬다. 말하자면, 대상적 세계를 기호적 세계로 변모시키기 위한 존재론적 조건이란, 표면적 동일성 아래에 자리한 기본적인 '기호학적 상황,' 즉 현실의 대상이 현실적 맥락으로부터 절연되어 순전한 기호적 세계 속에 새롭게 편입된다는 사실에 다름아니다.

이러한 기본적 전제 위에서 도상적 기호가 지니는 '조건적 성격'에 대한 논의가 도출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첫째로, 도상적 기호(그림)가 지니는 일차적인 조건성, 즉 부피를 지닌 3차원의 대상을 평평한 2차원의 형태로 바꾸어놓아야만 하는 필요성이 그것이다. 묘사 대상과 그림 사이에는 예컨대 투시의 원칙(원근법)과 같은 조건적인 등가성의 원칙이 놓여 있다. 두번째로, 도상적 기호의 '직접성' 역시 본질적으로는 문화적으로 '조건화'되어 있다는 점, 즉 이해의 용이함이라는 것 자체가 단지 동일 문화권 내에서만 통용되는 원칙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사실은 유럽 인상주의 회화가 중국인 감상자에게 야기하는 낯센뿐 아니라 더 넓게는 외계 문명과의 접촉에 있어서도 해당되는 것이다. 지구 문명 밖에 존재하는 생물에게 '이해 가능한' 그림과 '이해될 수 없는' 글간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며, 이런 점에서 그 접촉의 출발점이 글과 그림이 아니라 수학적 관계를 도식적으로 표현한 형태를 띠는 것은 일리가 있다.

도상적 기호의 재현성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다만 '상대적'인 특성이란 사실을 보여주는 예는 수없이 많다. 어떤 경우에는, 회화 속에서의 기호가 표현과 내용의 관계에 있어서 단어 고유의 특질인 '조건성'을 획득할 수도 있다. 고대 이집트 회화사에 나타나는 파라오 벽화 장르에서, 파라오는 자신의 실제 성과는 상관없이 항상 소년으로 묘사되었으며, 진짜성은 명문을 통해 밝혀진다. 파라오가 여성일 경우, 소년을 묘사한 그림은 소녀라는 내용에 대한 표현이 됨으로써, 재현적 기호의 본질 자체와 근본적으로 대립하게 된다.

고전주의 회화에서처럼 일정한 디테일들이 고도의 조건성을 띠며 코드

화되는 경우 이외에도, 회화사에는 '조건성'을 향한 의식적인 예술적 지향, 즉 '지극히 사실적인 묘사'를, 그것이 다름아닌 묘사이며 컨벤션(조건성)일 뿐이라는 강조와 결합시킨 예'들을 찾아볼 수 있다. 푸코의 분석에서 주/객체 자리바꿈 전략의 예로 지적된 바 있는 벨라스케스의 그림 「시녀들」은 '조건성'의 계획된 노출을 통해 재현 예술 언어 자체의 본질, 즉 묘사 대상에 대한 그것의 관계 자체를 명징한 인식의 대상으로 만들어놓고 있다. 이와 같은 전략은 묘사 대상과 묘사 간의 '거리'(변형, 이탈)를 보여줌으로써, 둘 간의 무조건적 동일성이라는 순진한 전제를 무너뜨리고, 재현의 메커니즘 자체, 다시 말해 재현의 '언어' 자체에 주의를 집중시키도록 만든다. 바로크 회화에 특징적인 이러한 전략—재현되는 대상으로부터 재현의 '방식'을 분리시킴으로써 언어의 본성에 대한 자기 인식 과정 자체가 묘사의 대상이 되도록 만드는 방식—이 바로크 시대의 언어 예술에 나타나는 일반적 경향으로서의 언어적 '수사(rhetoric)'를 놀랄 만큼 생생하게 상기시킨다는 점을 알아차리기란 어렵지 않다.

이상의 논의를 통해 분명해지는 것은, 시각적인 관점과 언어적인 관점 모두에 있어서, 예술적 실천이 유토피아적 순수성, 즉 순수한 이미지나 순수한 텍스트의 가능성을 해체한다는 사실이다. 언어적 담론에서 시각성(도상성)의 구상적 위상을 부정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순전히 형과 색으로만 이루어진 회화에서 언어적 형식의 구상적 위상을 부정하기도 힘들다. 차라리 그것은 언어적인 것과 시각적인 것 간의 불가분한 결합, 둘 사이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의 결과물로 나타난다.

그러나 비언어적 예술 장르에서 목도되는 '언어적 지향'의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앞서 지적했듯이, 문제의 핵심은 역설적이면서도 영원히 작동되는 재현 예술의 일반 경향, 즉 '서술'을 향한 회화와 그래픽의 지향에 있다. 이러한 지향이 의미심장한 이유는, 조형 예술이 질료의 본성상 서술에 복무하도록 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에 있다. 텍스트로서의 '문자'는 기호라는 본질적인 단위로 나뉜다. 기호들은 여러 차원의 통사체로 결합

되어 자연스럽게 사술을 형성한다. 반면, '그림'은 분절적인 단위로 나뉘지 않는다. 이때의 기호성이란 기호들의 연쇄와 결합이 아니라 대상을 평면 위에 투영하기 위한 몇몇 법칙들의 결과로 나타날 뿐이다. 문자의 경우, 기호는 텍스트 이전에 존재하는 1차적인 것이며, 텍스트는 기호들의 연쇄와 결합을 통해 2차적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그림의 경우에는 텍스트가 1차적이며, 기호는 텍스트 자체와 동일시되거나 혹은 언어적 전언으로부터의 유추라는 2차적인 조작을 통해 나뉠 수 있을 뿐이다.

결국 문제는, 전언이 명백한 분절성을 지니지 않으며, 따라서 자연 언어적 의미에서의 '기호' 단위를 추출해낼 수 없는 일정한 전언이 과연 어떠한 과정을 통해 서술 텍스트가 될 수 있는가에 있다. 언어 중심주의의 환원적 경향, 즉 비분절적-도상적 유형의 텍스트에 무리하게 언어적 구조를 대입하는 대신에 다음과 같은 대안이 가능하다. '기호 없는 기호 체계'가 단지 모순이 아니라 명백한 현실이라 할 때, 우리는 언어의 도움을 빌린 통상적인 서술이 단지 '이야기'의 가능한 두 유형 가운데 하나일 뿐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여야만 한다.

즉, 로트만에 따르면, 서술 텍스트는 두 가지 방식으로 구축될 수 있다. 첫번째 방식은 우리에게 익숙한 '언어의 도움을 빌린 이야기'이다. 언어-기호는 주어진 언어의 규칙과 전언의 내용에 따라 '결합'되어 '사술'을 형성한다. 선형적 구조를 지니는 언어적 서술은 무엇보다도 '첨가,' 즉 새로운 단어와 구절, 문장을 덧붙임으로써 구축된다. 이러한 서술은 언제나 텍스트 용량의 증가를 가져온다. 반면 내적으로 비분절적인 도상적 타입의 서술은 새로운 것의 첨가가 아니라 "내적 요소의 변형과 재배치"를 통해 구축되며, 이때 텍스트의 양은 늘어나지 않는다. 이러한 서술의 가장 명징한 예는 유아용 '만화경'이다. 색색깔의 작은 유리 조각들은 대칭적 형상의 무한한 변형을 만들어내면서 일정한 서술을 창조한다.

로트만은, 성서의 '돌아온 탕자' 모티프가 언어적 서술과 조형적 서술을 통해 어떻게 다르게 구현되는가를, 「벨킨 이야기」의 해당 구절과 러시아

전통 회화 양식인 루복과의 비교를 통해 보여준다. 1) 집을 떠나는 아들을 축복하는 아버지, 2) 아들의 방탕, 3) 고통과 절망의 진창에 빠진 아들, 마지막으로 4) 아들의 귀환을 묘사한 4가지 그림은, 기본적으로 새로운 요소, 새로운 정보를 '첨가'함으로써 구축되는 푸슈킨의 '언어적 서사'와는 달리 '하나의 그림'의 서로 다른 4가지 변이형으로 지각된다. 이 같은 사실은 시공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4가지 그림 모두에서 인물들이 동일한 모자와 의상을 입고 나타난다는 것에서 드러난다. 모자나 의상과 같은 개인적 기호들은 인물의 '동일성'을 보존하는 불변체적 요소로서 일련의 묘사들 속에서 '통일성'을 보장한다. 이는 성자의 일대기를 묘사한 러시아 성상화에서 성자의 옷이 변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이다. 결국, 도상적 기호가 서술 텍스트로 전환될 수 있는 가능성은 그 속에 어떤 '내적 움직임'의 요소가 있는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한 인물의 미세하게 변화되는 얼굴 표정을 담은 영화 장면의 경우, 관객은 그것을 연속적인 것으로서, 말하자면 '하나의 장면(shot)'으로 인지한다. 그러나 '한 사람의 얼굴'이라는 불변 요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는 이 shot의 범위 내에서 '변화될 수 있는' 가변적인 요소들, 그리고 이러한 '내적 요소들의 변형과 재배치'라는 조형적 서사의 본질이 구현되어 있다.

언어의 도움을 빌린 통상적인 서술이 단지 '이야기'의 가능한 유형 중 하나일 뿐이며, '그림'을 통한 이야기 역시 자신에게 고유한 기호적 방식을 지닌다는 위와 같은 인식은 로트만 기호학의 중대한 진전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는 이른바 비언어적·비분절적 유형 고유의 기호학적 존재 방식을 찾고자 하는 시도로서, 60년대 초반 로트만 기호학의 명백한 '언어 중심주의적 사고'——“인간의 의식이란 곧 언어적인 의식인바, 의식 위에 구축된 모든 종류의 모델들은 곧 2차 모델링 체계이다”——로부터 이미 현저하게 이탈된 것이다. 대략 70년대 초반에 로트만 기호학 내부에서 발생한 이 같은 변모를 통해, 문학·영화·회화 등 개별 장르 속에서 발견되는 '말'과 '그림' 간의 복합적 양상은 '예술'의 영역을 넘어 '문화' 전체로 확

대된다. 이에 따라, 분절적 유형과 비분절적 유형 간의 대립과 상호 작용은 예술적 실천의 특수한 사례가 아니라 ‘초-지성적 메커니즘’으로서의 문화 자체가 기반하는 가장 기본적인 구조적 원칙으로 자리매김되고, 결국 이것은 로트만 후기 기호학에서 문화의 원칙적인 ‘복수 언어주의’라는 개념으로 종합된다.

3. 신화적 유형과 언어적 유형

로트만 후기 기호학의 중심 전언은 통상 ‘언어적인 것’으로 대표되는 분절적 유형의 의식과 기호 작용이 복수항으로 이루어진 상부의 메커니즘을 구성하는 한쪽 인자일 뿐이며, 그것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방식으로 구축된 또 다른 유형의 의식, 기호 작용과 함께 ‘길항적 지렛대’를 이루며 공존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의 논점은, 언어적-선형적 방식으로 설명 불가능한 ‘비분절적 유형들’이 인류 문화 속에서 지니는, 결코 부차적이지 않은 의미를 드러내 보이는 것, 그리고 이른바 ‘언어적-분절적’ 유형들과 그것들 간의 혼종적 결합이 어떠한 양태로 드러나는지를 밝히는 것에 놓인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언어적-선형적 유형에 대한 대립항으로 제시되는 ‘또 다른 유형’에 대한 접근이 단순히 비언어적 체계들에 대한 기호학적 탐구(예컨대 ‘이미지’의 기호학적 존재 방식)가 아니라 소위 ‘언어적 의식’과 구분되는 ‘또 다른 의식의 유형,’ 즉 ‘특수한 방식으로 구축된 특정한 의식의 현상’에 대한 접근으로 간주된다는 사실이다. 언어적 세계상, 언어적 의식 구조와 원칙적으로 구분되는 이러한 특정한 세계, 특정한 의식의 모델은 로트만에 의해 ‘상징적 유형’ ‘텍스트 지향적 유형’ ‘의미론적 유형’ 등 다양한 방식으로 불리는데, 그 모두는 ‘신화’ 혹은 ‘신화주의’라는 이름으로 수렴될 수 있다.

로트만이 사용하는 신화, 혹은 신화주의라는 용어는 두 가지 면에서 통상적인 의미와 구별된다. 첫째로, 그것은 특정한 '서술 텍스트'로서의 신화가 아니다. 글로 씌어진 텍스트로서의 신화란 이미 '번역된' 텍스트, 일종의 혼합물이며 따라서 '특정한 의식의 현상'으로서의 신화와 원칙적으로 구분된다. 둘째로, 그것은 통시적 관점에서 파악되는 전(前)-역사적 단계의 산물이 아니다. 로트만의 관점 속에서 신화, 신화주의는 인류 문화의 전시기에 걸쳐 작동하는 유형학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다. 따라서, 각 문화 단계에서 신화주의의 상대적인 쇠퇴와 부흥을 말할 수는 있어도 그것의 완전한 소멸이란 불가능하다.

그렇다면 신화, 신화주의로 불리는 특정한 의식에 고유한 기호학적 특징은 무엇인가? 신화의 세계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호학적 특징은 원칙적인 '동형동상' 개념이다. 신화적 세계 속에서 모든 대상들은 원칙적으로 단 하나의 대상, 계층상 최상부에 속하는 하나의 '원-대상'을 표상한다. 상이한 기호들은 단지 '하나의' 의미의 여러 다른 형상들, 그 의미의 동의어(혹은 반의어)일 뿐이다.

이와 관련하여 '부분'의 개념이 매우 독특한 의미를 부여받는다. 즉, 부분은 전체와 동형동상이다. 부분은 전체의 한 '단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의 '상징'이다. 신화 속에서 세계는 무수한 부분들로 분할되는데, 그러나 신화의 '부분들'은 하나의 '자질'로서 '전체'를 '특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자신 또한 하나의 '총체'로서 전체와 '동일시'된다. 이러한 특징은 비신화적 관점에서는 결코 동일시될 수 없는 대상들 간의 동일시를 가늠케 한다.

이때, 신화적 동일시는 '논리적 상관성'에 따른 메타 언어의 도입, 즉 '번역'의 과정이 아니라 대상들 간의 일정한 '변형,' 말하자면 하나의 대상이 또 다른 대상의 '술어'로 기능하게 됨을 말한다. 로트만에 따르면, 다음의 두 문장—1) 세계는 물질이다/2) 세계는 말(馬)이다—간에는, 표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원칙적인 차이가 존재하는데, 첫번째 문장이

‘논리적 상관성’에 따른 ‘메타 언어’에 기반하는 반면, 두번째 문장은 원칙적인 ‘동일성’에 따른 ‘메타 텍스트’에 기반한다. 비신화적인 (묘사적인) 서술인 첫번째 경우, ‘이해’는 메타 언어의 도입, 즉, 다른 차원에 속하는 ‘또 다른 언어’로의 ‘번역’을 통해 가능해지는 반면, 신화적 유형의 두번째 경우, 이해는 대상들의 일정한 ‘변형,’ 즉 이러한 ‘변형 과정’에 대한 이해와 관련된다.

동형동상의 특징은 부분과 전체뿐 아니라 기호 내부의 ‘표현’과 ‘내용’면에도 해당된다. 신화적 세계 속에서 기호는 ‘도상적 원칙’에 따라 구성되며, 따라서 표현과 내용 사이에는 ‘유사성’의 관계가 존재한다. 그것은 자의적이지도 조건적이지도 않으며, 예컨대 신에 의해 정해진 영원한 것이다. 여기서 ‘거울’의 이미지는 다시금 유용하며, 신의 모상으로서의 인간의 이미지 역시 도상적이다.

신화적 세계의 역설적 성격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논리적 메타 언어가 존재하지 않는 ‘단일 언어’ 세계이면서, 동시에 가치론적 관점에서는 고도로 ‘계층적으로’ 조직된 대상 세계라는 점이다. 신화적 세계는 메타 언어적 ‘범주’ 개념을 통해 계층화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 자체의 계층화로 구축된다. 즉, 비신화적 의식에서 변별적 자질들로의 분할은 신화적 의식의 ‘부분들’로의 분할에 해당한다. 이때, 각기 자족적인 ‘총체’로서 존재하는 신화의 개별 부분들은 한편으로 전체와 동일시되면서, 다른 한편으로 신화적 세계 모델 속에서 그것이 차지하는 위계 질서적 위치에 따라 자신의 의미론적 ‘가치’를 부여받는다.

흥미로운 사실은, 언어적 사유 형식에 침전된 우리의 의식에는 다소 낯선, 따라서, 외견상 ‘반기호학적 현상’으로 여겨질 만한 신화적 의식이 사실상 매우 중대한 ‘문화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이다. 앞서 지적인 신화적 세계의 고도의 계층적 성격과 분할의 특징은 ‘질서화’와 ‘분류화’를 향한 지향으로 구현된다. 세계의 다양한 현상들을 하나의 불변체적 형상으로 수렴시키는 신화의 능력은 세계를 질서 잡힌 형태로 분류하고 ‘법

칙'과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일정한 세계상(모델)'을 구축한다. 세계를 일정한 방식으로 모델화하는 신화적 능력은 전-과학적 단계에서 '과학'의 기능에 대응될 뿐 아니라, 실제로 일련의 과학적 유형의 성취——예컨대 '달력'과 같은——를 자극한다. 달력은 한정된 숫자의 구성소로 이루어진 일종의 자족적 세계다. 자족적 세계의 법칙과 질서는 그 자체로 우주를 표상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실과 관련되는데, 즉, '반복'과 '질서'로 이루어진 신화적 세계상의 관점에서 법칙과 규범으로부터 이탈된, 다시 말해, 엄정한 신화적 위계 질서의 라인에 포함되지 않는, '이례적인 것들' '일회적인 것들'은 곧바로 무(無)로, 즉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신화는 '존재하는 것' '일어난 것'이 아니라 '존재해야 할 것' '일어나야 할 것'에 관하여 이야기함으로써, 현상들에 법칙성을 부여하고 그것을 영속화한다. 여기서 신화적 의식의 '비시간적' 특징은 명백하다. 즉, 신화적 시간 경험은 원인과 결과의 사슬로 이루어진 선형적인 그것이 아니라 반복과 순환으로 나타날 뿐인 영원성의 체험이다. 세계의 영원한 구조, 본질은 역사적 시간의 법칙에 복종하지 않는다. 시간과 결합된 것은 역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것이 된다.

주목할 사실은 법칙과 규범의 확립이라는 신화적 기능이 문화 속에서 담당하는 실제적인 역할이다. 신화는 '집단적 기억'이라는 문화의 본질적인 역할을 수행한다. 문화를 '비유전적 정보'를 기억시키고 전달하는 메커니즘이라 할 때, 신화적 의식은 이를 위한 불가결한 구성소가 된다. '글로 씌어진 것' '기록되어 남겨진 것'만이 전달되고 기억된다는 언어적 의식의 통상적 관념은 여기서 역전된다. 세계의 법칙성과 질서, 행위의 규범은 씌어지고 읽혀짐으로써 배워지는 것이 아니라, 춤·노래·그림, 각종 상징들로 이루어진 '행위'의 총체, 즉 '제의'의 형식으로 익혀진다. 특정한 상황에 대한 관념, 감정, 행위의 규범은 이른바 비언어적 형식의 수단을 통해 집단의 구성원들의 의식 속에 각인되고, 기억되며, 전승된다.

그러나 신화적 의식은 인류의 그 어떤 생존 단계에서도 인간 의식의 유일한 조직 형식이 될 수 없다. 신화적 세계 속에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되는 방대한 삶의 영역—우연적·예외적·일회적 사건의 영역들은 '언어적 형식'의 이야기들(연대기, 노벨라, 역사적 텍스트) 속에 퇴적된다. '일어나야만 할 것', 즉 '원칙'에 관해 이야기하는 신화와는 달리 이들은 '실제로 일어난 것', 즉 '사건'에 관해 말한다. 말하자면 그것은, 1년 중 어느 절기에 추수가 있어야 하는가에 관해서가 아니라 올해의 추수가 어떠한가에 관해 말한다. 이로부터 '선형적 시간', 정확하게는, 원인과 결과의 순차적 관계성에 대한 예민한 관심이 부각되고, 그 결과 '역사'에 대한 개념이 형성된다. 신화가 자신의 세계 모델 속에서 대응물을 찾을 수 없는 실제적 사건의 영역들을 비존재로 간주하는 반면, 연대기적-역사적 세계는 실제로 관찰되는 현실의 양상에 위배되는 신화적 법칙성을 폐기하고 그 자리에 사건의 순차성과 인과 관계를 내세운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실은, 이렇듯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모델화 방식의 공존과 상호 작용이 문화의 보편적·항구적 현상이라는 점이다. 한쪽 축에서는 상이한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 간의 동일시—시적 사유, 부분적으로는 수학적·철학적 사유에 고유한 동형동상, 이질동상의 원칙이 드러나며, 다른 쪽 축에서는 서사 텍스트에 고유한 순차성, 인과적·연대기적·논리적인 연관 관계가 드러난다. 세계 구조의 인간적 체험은 이 두 가지 축 사이의 구조적 긴장의 장 위에서 이들 간의 끊임없는 내적 번역과 텍스트적 교배로써 구현된다. 즉, 인간 의식, 그리고 그를 통해 재현된 세계 구조는 결코 '순수하게' 신화적인, 혹은 '순수하게' 언어적인 형식으로 존재할 수 없다. 어느 경우에도 우리는 이미 일정한 '혼종성'과 마주하며, 이 같은 사실은 인간의 의식과 사유 구조 그 자체의 근원적인 혼종성을 시사한다.

이러한 혼종성의 예로서 '고유명사'의 기호학적 존재 양상은 매우 흥미롭다. 고유명사가 여타의 언어적 범주들 가운데 지니는 독특한 성격은 그

것을 단순한 문법적 영역이 아니라 '언어의 독특한 신화적 층위'로 간주하게끔 한다. 로만 야콥슨이 지적했듯이, 동일한 이름으로 불리는 많은 대상들은 그 이름을 지닌다는 것 이외에 그 어떤 특별한 자질을 공유하지 않는다. 고유명사(이름)는 대상의 추상적인 모형이나 대상에 대한 개념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 자체를 지시한다. 때문에 고유명사는 대상으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기호가 아니라 그 대상의 불가분한 속성으로 지각된다. 이름과 대상 간의 비조건적인 결합 관계와 그것이 지니는 원칙적인 개별성은 '고유명사'의 존재론이며 동시에 신화의 특징이다. 이 점에서 신화적인 세계의 대상들이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고유명사를 가진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모든 이름이 고유명사인 세계' 속에서는 사물의 성질이 소외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한 사물은 다른 사물의 술어가 된다. 즉, 그것은 '번역'이 아니라 '명명'이며 '동일시'이다.

한편, 모든 사물들이 오래되고 잘 알려져 있는 이 친숙한 관계들의 세계 속에서, 행위는 대단히 구체적으로 인식되는 까닭에, 말을 한다는 것은 이미 '동사'의 발음이 아니라 행위 자체의 '재현'에 가까워진다. '고유명사'로 이루어진 언어, '행위의 재현'을 통한 전달의 양상이 '인간 개체의 신화적 단계,' 즉 '유아어'의 세계를 놀랄 만큼 연상시킨다는 사실을 깨닫기는 어렵지 않다. 모든 단어를 고유명사로 간주하려는 경향, 명명의 과정을 인식과 동일시하는 것, 시공간의 독특한 체험 등 '유아 의식'의 전형적인 자질들은 신화적 세계를 특징짓는 전형에 다름아니다. 본질상, 신화적 유형에 속하는 유아의 의식 세계는 성인의 의식 구조 안에서 결코 완전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본질적인 모델화 메커니즘의 하나로 계속해서 기능하며, 따라서 이러한 사실을 무시한 채 성인의 의식과 행동 패턴을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로트만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상이한 방식으로 조직된 두 대립항의 공존과 상호 작용은 인간 의식을 포함한 문화의 전영역에서 확인되는 보편적인 현상이 된다.

유아의 의식	—————	어른의 의식
신화적 의식	—————	역사적 의식
도상적 사유	—————	언어적 사유
행위	—————	서사
시	—————	산문

이러한 대립쌍은 얼마든지 더 열거될 수 있으나, 중요한 사실은 이 모든 대립항들의 불변체적 구조로서 '분절적-선형적' 기초와 '비분절적-연속적' 기초 간의 대립이 목도된다는 점이다. 기호학적 메커니즘으로서의 문화 체계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대립의 보편성은 한편으로, '말'과 '그림' 혹은 '조건적(언어적) 기호'와 '조형적 기호' 간의 대립과 상호 작용이라는 전통적인 문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줄 뿐만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그것을 인간-텍스트-문화 간의 구조적 동형성이라는 새로운 문제 틀로 이끈다.

4. 문화의 복수 언어주의

인간이 주변 세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모델화하기 위해 두 가지의 상이한 방식을 사용한다는 사실은 명백한 것이 되었다. 이들은 본질적으로 상이한 방식으로 구축되었을 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며 서로 다른 모델을 산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공존과 상호 작용은 선택적 사항이 아니라 인류 문화의 전시기와 영역에 걸친 보편적·항구적 현상이다. '말'과 '그림' 간의 대립이라는 전통적 문제는 이 같은 조망 하에서 문화의 특징적인 이중 언어 현상의 가장 기초적인 표현이 된다: "하나의 고립된 기호학적 체계는 그것이 아무리 완벽하게 구조화된 것이라

할지라도 문화를 구성하지 못한다. 이를 위해서는 상호 관련된 기호학적 체계들의 복수성이 최소한의 메커니즘으로서 요구된다. 이때, 자연 언어로 씌어진 텍스트와 그림은 두 언어로 구성된 문화의 메커니즘의 가장 명징한 표현이 된다.”

그러나, 어떤 의미에서 연구의 초기 단계부터 이미 존재했던 이러한 문제의식을 ‘문화의 원칙적인 복수 언어주의’에 대한 확신으로 이끄는 것은 상이한 두 체계의 공존을 바라보는 로트만의 관점이다. 로트만에 따르면, 상호 간에 완벽한 번역이 불가능한 두 언어의 공존이라는 문화의 존재 양태는 그 자체로 인간·텍스트·문화를 아우르는 ‘창조적 과정’의 본질을 이룬다. 이 대목에서, ‘창조적 과정의 본질은 무엇인가,’ 다시 말해 ‘새로운 의미는 어떻게 생성되는가’의 문제는 이른바 ‘지성 intellect’의 존재론과 만나게 된다.

‘지성(능)’을 기호학적 맥락에서 정의하려는 로트만의 시도에서 주목을 끄는 것은 소위 ‘지능적인 것’의 자질을 인간에게만 고유한 특징이 아닌 유사한 방식으로 조직된 기호학적 대상 일반의 그것으로 확대하려는 경향이다. 즉, 로트만의 사유 속에서 인간·텍스트·문화는 이른바 ‘사유하는 조직체’라는 공통의 불변체로 함께 묶인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이들 세 그룹의 지능적 대상——인간 의식, 텍스트, 그리고 집단적 지성으로서의 문화——사이에서 발견되는 기능적·구조적 유비가 다름아닌 기호학적 ‘비단종성,’ 다시 말해 ‘혼종성’의 자질이라는 점이다.

여기서 인간 대뇌의 양반구적 구조(좌뇌/우뇌)와 그들 간의 기능적 비대칭성에 관한 신경 심리학의 연구는 뜻밖의 대응을 발견한다. 이 같은 대응은 ‘사유하는 조직체’의 최소한의 구조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조직된 두 개의 하부 구조 간의 합으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에 그치지 않는다. 우리는 인간 개체와 문화 체계 모두에서 모종의 혼종성——마치 하나의 의식 안에 두 개의 의식이 존재하는 듯한——을 보게 될 뿐 아니라, 둘 모두에서 일종의 ‘불변체’로서 다음과 같은 공통 분모를 추출할 수 있다. 즉, 두 하부 구

조 중 한쪽 축에서는 '분절적-선형적 원칙'이, 다른 쪽 축에서는 '비분절적-연속적 원칙'이 지배한다.

한쪽 축은 코드화의 분절적 시스템을 사용하며 결합된 단위들의 선형적 연쇄를 이루는 텍스트들을 산출한다. 이 경우 의미의 기본적인 전달자는 개별 단위(=기호)이며, 그들의 결합이 만들어낸 연쇄(=텍스트)는 이차적인 것이다. 이때 텍스트의 의미 확장은 개별 단위들의 선형적 결합의 원칙에 따라 텍스트 그 자체의 용량 증가로 구현된다. 분절적 텍스트 조직은 선형적 시간, 인과의 법칙, 역사주의의 감각과 관련된다. 한편, 또 다른 축에서는 텍스트가 일차적이다. 텍스트는 그 자체로 의미의 전달자가 된다. 그것은 자신의 본성상 분절적이지 않으며 연속적이다. 그것들의 의미는 선형적·시간적 순차성에 의해 조직화되지 않으며, 주어진 텍스트의 n 차원의 평면(그림의 화폭, 무대, 화면, 제의적 행위, 사회적 행위 등) 위에 투영된다. 한편, 의미의 확장은 텍스트의 양적 증가가 아니라 마치 수면 위의 동심원과 같은 유사-반복적 확장의 원칙을 따른다. 또한 그것은 순환, 반복적 시간 감각과 관련되며 동질-이질동상으로 구현되는 각종 유추적·공간적 사유——'모든 물(物)들 간의 대응'이라는 신비적 감각으로부터 추상적인 수학적 개념에 이르기까지——를 촉진한다.

인간 두뇌의 비대칭적 구조와 문화 체계의 비대칭성 간의 유비는 '분절적-선형적' 유형과 '비분절적-연속적' 유형 간의 대립의 문제에 새롭고도 의미심장한 중요성을 부여한다. 말하자면 이제 이러한 대립의 진정한 존재론은, 각각의 메커니즘의 내재적인 고유함에도 불구하고 발생하는 상호 간의 끊임없는 교환과 교접의 과정 그 자체가 된다. 이들이 상호 간의 번역이 불가능할 정도로 상이하게 구축된 메커니즘이라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하나로 묶기 위한 집요한 번역의 욕구가 존재한다는 또 다른 사실을 의미한다. 즉, 로트만에 따르면 "교환의 과정은 '의미론적 번역'의 형태로 실현된다." 그러나 원칙상 분절적 텍스트와 비분절적 텍스트 간의 완전한 번역이란 불가능하며, 이러한 번역 불가능성의 상황을 토

대로 '정확하지 않은 번역,' 단지 해당 문화의 심리적·의미론적 맥락에 의해 정의될 수 있을 뿐인 일정한 '대응'이 발생한다. 바로 이러한 "부정확한 번역,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관계 속에서는 대응을 이루는 번역이 이른바 '창조적 사유'의 본질을 이룬다."

만약 사유의 기초적인 행위가 '번역'이라면, 사유의 일차적인 메커니즘은 '대화'가 된다. '일정한 차이'가 전제되지 않는 대화는 불필요하며, 반면 '절대적인 차이'의 상황에서 대화는 불가능해진다. 즉, 그것은 일정한 번역이 가능할 정도의 '대응'을 전제하며, 동시에 이 대응이 불필요하지 않을 만큼의 '차이'를 전제한다. 알려진 바대로, '사유하는 조직체'의 대화적 본성에 관한 로트만의 이러한 관점은 그를 바흐친에 가깝게 접근시킨다: "그 어떠한 '독백적' (즉, 단일 언어적) 조직체도 본질적으로 새로운 전언(의미)을 발생시킬 수 없으며, 따라서 '사유하는' 것이 될 수 없다. 사유하는 조직체는 원칙상 (최소한의 체계상) 대화적 (이중 언어적) 구조를 지녀야만 한다. 이러한 결론은, 부분적으로, 대화적 텍스트 구조에 관한 바흐친의 사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홀로 고립된 조직체는 결코 새로운 의미를 발생시킬 수 없으며, 그것은 언제나 또 다른 조직체와의 '대화적 상황' 속에 자리해야만 한다는 로트만의 관점은, 결국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구축된 다양한 기호학적 체계들(언어들) 간의 '거대 대화의 장'이라 할 수 있는 '기호계' 개념을 낳는다. '기호계' 개념에서, 대화적 상황, 즉 '기호학적 체계들의 앙상블'은 개별 언어들에 앞서는 그것의 존재론적 조건이 된다. 말하자면, "'대화'는 '언어'에 선행하며 그것을 산출한다." 이러한 관점은 "존재한다는 것은 곧 대화함을 의미한다"는 바흐친의 명제를 직접적으로 연상시킨다. 커뮤니케이션 없는 의식이란 있을 수 없으며, 이런 의미에서 나의 자기 인식(존재 규정)은 오직 너와의 대화적 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로트만의 개념이 지니는 근본적인 차별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로트만에 따르면, 대화의 메커니즘은,

원칙적인 '번역 불가능성'의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동되는 '번역을 향한 요구'로 실현된다. 즉, 그것은 원칙상 일정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메타적 상부향'을 가정하는 개념으로써, 변증법적 합 개념의 '대화적 지양'이라는 바흐친의 '영원한 대화,' 결코 '종결되지 않는' 다원성과는 분명하게 구분된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사실은 이러한 대화 개념을 구성하는 실제적 내용 간의 차별성이다. 앞서 상술한 바대로, 창조적 사유의 본질을 이루는 조건적 번역과 대화의 메커니즘은 인간 의식과 문화가 기반하는 근본적인 대립항, 즉 '분절적-선형적' 유형과 '비분절적-연속적' 유형 간의 공존과 상호 작용에 다름아니다. 여기서 드러나는 '기호학자'로서의 로트만의 위상은 평생에 걸쳐 '말'의 문제, 즉 분절적-선형적 유형에 속하는 '언어'의 문제에 천착했던 바흐친의 그것과 명백하게 갈라진다.

따라서, 흔히 지적되는 바와는 달리, 문화의 '복수 언어주의(polyglotism)' 개념은 바흐친 소설론의 '다성성 poliphonia' 개념, 혹은 언어의 '혼종성 heteroglossia' 개념과는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알려진 바대로, "살아 있는 사회적-이데올로기적 구체성"으로서의 바흐친의 언어 개념에는 다 음과 같은 확신이 깔려 있다. 즉, "예술가의 의식이 살고 있는 생생한 구체적 환경으로서의 언어는 결코 '단일하지' 않으며 그 안에는 다양한 이념적-가치론적 뉘앙스를 지닌 '혼종성'이 담겨 있다." 바흐친에게 있어서, 이른바 '자연 언어'의 진짜 삶은 여하한 맥락으로부터 절연된 인위적이고 조건적인 추상물이 아니라 다양하고 이질적인 '발화들'의 대화적 관계이다.

반면, 로트만이 의미하는 이질적 혼종성은 다른 곳을 향해 있다. 즉, 로트만의 혼종성은 분절적-선형적 유형으로서의 통상적 '(자연) 언어' 안의 그것이 아니다. 문화의 복수 언어주의에 관한 그의 관점은, 이른바 '자연 언어'가 결코 인간적 커뮤니케이션의 '유일한' 형식이 될 수 없다는 것, 문화의 최소 기능 단위는 상이한 방식으로 구축된 두 가지의 이질적인 '언어들'이라는 확신에 기반한다. 따라서 표면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바흐

친의 '발화의 삶'과 로트만의 '텍스트의 삶', 바흐친의 '소설의 세계'와 로트만의 '문화의 세계'는 일면적으로 대응될 수 없는 개념들이다. 바흐친의 그것이 '말'들이 태어나고, 성장하고, 대화하고, 갱생하는 이질적 담론의 장이라면, 로트만의 그것은 '말'과 '그림'이 애초부터 공존하며 복잡하게 상호 작용하는 혼종적 기호 공간이다.

이로써, 로트만 문화 기호학의 이론적 위상은 분명해진다. 문화 기호학은 자신을 독립적인 학문적 분과로서 인지하는 그 순간부터, 문화의 복수 언어적 구조의 기능적 필연성을 설명해야 할 과제에 직면한다. 즉, 문화 기호학의 자기 규정은 상호 이질적인 다양한 기호학적 체계들의 존재와 그들 간의 기능적 상호 의존 관계, 그들 간의 상호 번역 불가능성과 구조적 비대칭성에 관한 문제 제기와 근본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개별적인 기호 체계들이 다름아닌 그들 간의 이중성 때문에 구조적 총체로 합쳐질 수 있다는 사실이 확실해진 순간부터, 고립된 기호 체계를 연구하는 기존의 기호학에는 합당하지 않은 특별한 연구의 대상이 도출된다.

이와 관련하여, 로트만 문화 기호학의 다음과 같은 '메타적-자기 인식'은 매우 의미심장하다. "문화의 자료들에 기호학적 방법을 적용하려는 시도는 첫 단계에서 '사회적 삶의 심장부에서 기호들의 삶을 연구하는 과학'이라는 소쉬르의 유산을 실현하는 것으로서 구현되었다. 이 단계에서는 문화의 다양한 '언어들'을 언어적-기호학적 방법론을 사용해 기술하는 것에 주요한 노력이 기울여졌다. [...] 이렇게 해서, 주요한 관심은 이러한 다양한 체계들의 '단일성'을 드러내는 것, 그리고 문화의 다양한 언어들에 메타 차원에서 하나의 거대한 '언어'로 나타내는 것에 집중되었다. 이 단계에서 문화 연구는 단지 흥미있는 예증들을 제공하는 영역이었을 뿐 독립적인 학문 분과는 되지 못했다."

결국, '2차 모델링 체계로서의 다양한 문화적 영역들(예술·신화·제의·종교 등등)에 관한 기호학적 연구'라는 우리에게 익숙한 모스크바-타르투 학파의 문화 기호학이란 사실상 '로트만 문화 기호학'의 관점에서는

극복되어야만 할 단계일 뿐이다. 이런 의미에서 볼 때, 60년대 초반 소비에트 구조주의의 씨앗에서 출발한 로트만 문화 기호학은 결코 이미 극복된 역사, 이론적 시효를 상실한 학문적 전통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일반적인 인식과는 달리, 모스크바-타르투 학파로 알려진 소비에트 구조주의-기호학은 '유리 로트만'의 이름 아래 90년대 초반까지 역동적인 내적 진화를 계속했다. 그리고, 오늘날 그것은 아직 완전히 열리지 않은 방대한 가능성의 영역이 되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Structural-Semiotics of Yu. M. Lotman

—Artistic Text as Synthetic Signs and Polyglotism of Culture

Kim Soo-Hwan

One of the main problems of modern semiotic, at the base of which lie premises of Saussurean linguistics(It is therefore possible to conceive of a science which studies the role of signs as part of social life. We shall call it semiology)—determining role of the universe of (non-verbal) images that cannot be ignored at the epistemological and scientific level in the present cultural context: the crisis of logocentric Western philosophical and scientific tradition, which from Plato to Sapir-Whorf has been almost exclusively concerned with the worlds divisible aspects.

The whole process of evolution of semiotic theory of Y.M. Lotman from notion of 'second modeling systems' to idea of 'semiosphere' can be useful suggestions for work in this direction.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of semiotics of Lotman is to prove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co-existence' of two kinds of absolutely different, independent and equal cultural signs: the word (conventional sign) and the picture(pictorial sign). Lotmans notion of literary tendency to 'iconicity,' survey of structural opposition between 'logico-syllogistic' and

'mythological consciousness' and especially his concept of 'culture as a binary semiotic system' in the analogy with the structure of humane brain effectively show that the worlds of iconic and conventional signs do not simply co-exist, they are in constant interaction, in continual mutual crossover and repulsion and this kind of process of mutual transfer is one of the essential aspects of cultural comprehension of the world by humans employing signs. This paper is devoted to illustrate outlined aspect of semiotic theory of Lotman and on the basis of this prove the theoretic validity of his theory in the present context of modern semiotics.

열쇠어: 언어 중심주의, 유리 로트만(로트만), 2차 모델링 체계, 신화적 의식(구조), 기호계, 복수 언어주의, 문화 기호학.